

사상체질별 안면부 전체적 형태의 특징에 관한 연구

박은아 · 최인호 · 김나영 · 윤상준* · 김선형** · 신미란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CJ제일제당 임상개발부,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체질개선클리닉

Abstract

A Study about Facial General Morpholog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Park Eun-Ah, Choi In-Ho, Yoon Sang-Jun, Kim Sun-Hyung, Shin Mi-Ran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

*CJ CheilJedang Clinical Development

**Kyung Hee University East-West Neo Medical Center

1. Objective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facial characteristics of Sasang constitution.

2. Methods

It assigns and measures the length of nine areas of the face using a picture, and calculates the proportions and gives statistical data of these items. It also references the proportion of the items using the contents of 『Sanghakjinjeon』 (『相學眞傳』) Ten face-types as a basis, divides the face into seven types, looks into the similarities between constitutions, and also compares it to clinically and frequently used constitutional facial characteristics.

3. Results and Conclusion

After comparing the analytical items between Taeumins, Soyangins, and Soeumins, Soeumins had an oval face due to the fact that the length and width that their lower faces took up was small compared to the entire face.

After dividing the facial characteristics of the test subjects using 十字相, there were significantly more Taeumins in Dong(同)_face-type, and Soeumins in Won(圓)_face-type. There weren't any significant group that Soyangins showed up in. After comparing these facial characteristics with that of previous facial characteristics found in books and used clinically, we were able to find corresponding items.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 Facial Characteristics, Sanghakjinjeon, Ten Face-Types

I. 서론

사상의학은 東武 李濟馬가 사람을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의 네 가지 체질로 나누어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으로, 체질을 정확하게 감별하는 것이 치료와 양생의 관건이 된다.

東武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과 「病證論」에서 많은 체질진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기준은 크게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病證藥理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 「四象人辨證論」에서 “사람의 형용을 자세히 관찰하여 재삼 연구하되 만일 의혹되는 점이 있으면 병증을 참작하여 똑똑히 보아 의심이 없는 연후에 약을 쓸 것이다.”라 하여 人物形容이 체질변증의 우선적 근거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기준으로는 體形氣像과 容貌詞氣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容貌는 얼굴의 형태 및 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체질 감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용모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 기존의 사상의학 저서는 『金匱秘方』, 『普濟演說』, 『四象方藥合編』, 『四象診療保元』, 『東醫四象要訣』, 『연변 사상의학』 등이 있었고², 최근에는 『性理臨床論』, 『四象相法』 등이 용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저서들에 나오는 안면부 특징을 객관화하여 사상체질진단에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³. 또한 실제 측정을 통해 구체적 수치로 파악하고,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현재 사상인별 안면부 특징에 대한 연구 및 이를 활용한 체질진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⁴⁻¹⁴, 최근에는 새롭게 도입된 3차원 안면자동인식기를

활용한 용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⁵. 그러나 안면자동인식기를 이용한 체질감별은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이 필요한 단점으로 폭넓게 활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안면 망진을 통한 단순하고 효율적인 안면부 특성 파악 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동양학에서는 얼굴과 관련된 분야로 사람의 성격과 환경, 미래의 길흉화복을 알아보기 위하여 발전되어 온 觀相學이 있다. 그 중에서도 안면의 형태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모든 얼굴 형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는 ‘十字相’의 관상법이 있다¹⁶. 十字相은 얼굴의 전체적인 형상을 甲字相, 田字相, 申字相, 同字相, 由字相, 圓字相, 目字相, 王字相, 用字相, 風字相의 글자 모양으로 분류한 것이며,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열 가지로 단순화시켜 분류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얼굴 자체의 형태를 보다 쉽게 인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준선을 제시하고 그 비율과 체질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으며, 관상학에서 얼굴을 관찰하는 방법의 하나인 十字相과 체질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8년 2월 1일부터 2008년 5월 15일까지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내원한 환자 중 체질이 확진된 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분포는 남자 36명, 여자 33명이며, 체질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nit: Mean ± S.D.

		Taumin (n=28)	Soyangin (n=21)	Soeumin (n=20)	p-value
	Number	16	12	8	
Male	Age(years)	42.8±19.2	48.9±23.1	60.8±23.3	0.300
	BMI(kg/m ²)	26.7±2.0	23.3±2.4	21.4±1.3	0.000
	Number	12	9	12	
Female	Age(years)	52.3±22.8	59.8±20.2	43.4±19.2	0.158
	BMI(kg/m ²)	26.6±5.6	20.3±2.6	20.6±2.7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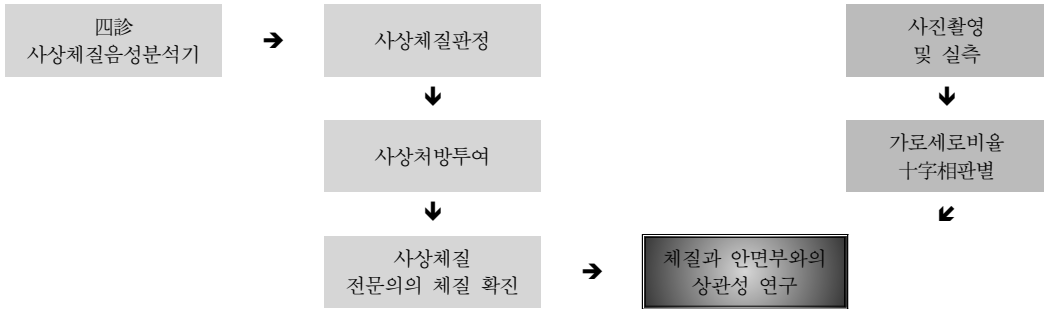


Fig. 1. Outline of Methods.

포는 태양인 0명, 태음인 28명, 소양인 21명, 소음인 20명이다.

2. 연구방법

1) 체질진단방법

사상체질과 외래 및 병동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환자로, 四診과 사상체질 음성분석기를 통한 체질감별 및 사상 처방 4주 이상 투여 후 호전 반응을 보인자를 대상으로 사상체질과 전문의의 판정에 의해 체질을 확진하였다.

2) 촬영방법

계측의 정확성과 편리성을 위하여 한국한의 학연구원에서 표준화된 얼굴 촬영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카메라

Samsung VL00 NV10 (1030만 화소)을 사용하였다.

(2) 조명

실내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밝게 한 상태에서 촬영하였다.

(3) 촬영대상자

의자에 앉도록 하고, 시선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안경이나 귀걸이, 목걸이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가급적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을 촬영한다. 또한 정면, 측면의 발제선과 목이 모두 노출된 상태로 촬영하였다.

(4) 표준자

대상자의 거리를 표준화시킬 수 있는 눈금이 선명한 50cm 직자를 사용하였다. 정면 촬영 시 동공에서 수직으로 내려와 턱 밑 1cm에 자를 대고 측면 촬영 시 정중선에서 수직으로 내려와 턱 밑 1cm에 자를 대는데, 정확한 위치와 수평을 유지 한다.



Fig. 2. Example of Picture.

(5) 촬영

카메라의 렌즈 축을 피검자의 시선 높이에서 정면에 맞춘다. 대물렌즈에서 검은 눈동자까지 거리는 180cm로 하고, 카메라를 세로로 삼각대에 고정시킨다. 정면 촬영 시 초점은 finder의 중앙을 동공 사이 중앙점에 두고, 측면 촬영 시에는 초점을 귀의 골이공점에 둔다.

3) 측정방법

측정은 B5 크기로 확대한 사진상을 이용한 간접측정을 원칙으로 하였다.

4) 측정시의 기준점

R. Martin식 측정법을 이용한 고 등⁴의 논문에서 나오는 측정점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 하였다.

5) 측정항목

측정항목은 한 사람당 9가지이며 얼굴 가로길이 측정항목 5가지, 얼굴 세로길이 측정항목 4가지이다(괄호 안의 내용은 고 등⁴의 논문에서 해당되는 항목이다).

(1) 얼굴의 가로길이 측정항목

- A1. 좌우의 앞머리용기사이를 잇는 앞머리면에 투영한 길이(V55)
- A2. 미간점(Glabella)을 지나는 수평선과 얼굴 좌우 양끝이 만나는 점을 이은 선을 앞머리면에 투영한 길이
- A3. 좌우광대뼈의 가장 바깥꼭각점간을 잇는 직선을 앞머리면에 투영한 길이(V51)
- A4. 비하점(Subnasale)을 지나는 수평선과 얼굴 좌우 양끝이 만나는 점을 이은 선을 앞머리면에 투영한 길이
- A5. 턱순구점(Labiomentale)을 지나는 수평선과 얼굴좌우 양끝이 만나는 점을 이은 선을 앞머리면에 투영한 길이

(2) 얼굴의 세로길이 측정항목

- B1. 발제점(Gnathion)과 미간점(Glabella)을 잇는

수직선을 시상면에 투영한 길이(V81)

- B2. 미간점(Glabella)과 비하점(Subnasale)을 잇는 수직선을 시상면에 투영한 길이(V82)
- B3. 비하점(Subnasale)과 턱하점(Trichion)을 잇는 수직선을 시상면에 투영한 길이(V83)
- B4. 발제점(Gnathion)과 턱하점(Trichion)을 잇는 수직선을 시상면에 투영한 길이(V2)

(3) 수식으로 얻은 측정항목 간의 비율 위의 측정항목을 이용하여 十字相 판별을 위한 수식 6가지를 만들었다.

- F1=B4/A3
- F2=A1/A3
- F3=A5/A3
- F4=B1/B4
- F5=B2/B4
- F6=B3/B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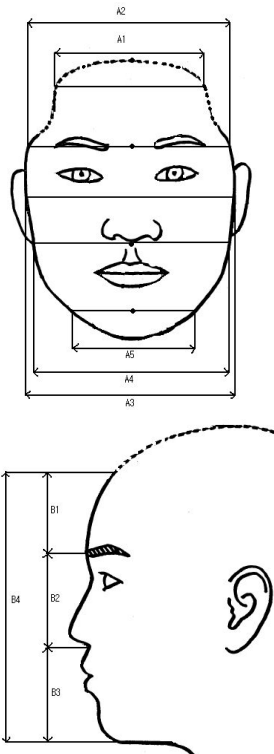


Fig. 3. Measuring Items.

6) 『相學眞傳』의 十字相16

- ① 甲字相: 이마는 넓게 발달하였으나 턱이 빈약하여 뾰족하거나 뒤로 후퇴해 있는 얼굴
- ② 田字相: 사방이 넓으나 각선이 뚜렷하고 이마와 턱이 넓어 이마의 눈썹에서 발제사이와 아래턱의 입술양쪽아래가 풍만한 얼굴
- ③ 申字相: 이마가 좁고 아래턱이 뾰족하며 얼굴의 중앙 즉 눈썹의 좌우로부터 코끝의 좌우까지의 양면을 포함한 얼굴의 중앙부위가 발달한 얼굴
- ④ 同字相: 전체적으로 길고 넓으며 양 顴骨과 코와 아래턱이 풍만하고도 각선이 분명하여 同자모양으로 생긴 얼굴
- ⑤ 由字相: 이마는 좁고 턱은 풍만하게 생긴 얼굴
- ⑥ 圓字相: 전체적인 모양이 둥글고 눈과 귀가 모두 둥글게 생긴 얼굴
- ⑦ 目字相: 이마는 높고 길지만 좁으며 눈썹사이 印堂에서 코끝인 準頭의 사이가 짧고 작으며 턱이 좁고도 긴 얼굴
- ⑧ 王字相: 전체적인 모양이 方正하고 뼈는 많되 살이 부족하여 사방의 뼈가 드러난 듯이 보이며 그에 따라 눈썹 끝에서 발제 사이와 뺨 부위의 살이 부족해 보이는 얼굴
- ⑨ 用字相: 전체적인 형상이 위와 아래가 단정하지 못하거나 좌우의 균형이 바르지 못한 얼굴로 이마가 비뚤어지거나 눈썹이나 눈의 균형이 맞지 않고 코가 한쪽으로 굽어져 있으며 귀의 짝이 맞지 않거나 턱이 비뚤어지는 등 얼굴의 五官의 균형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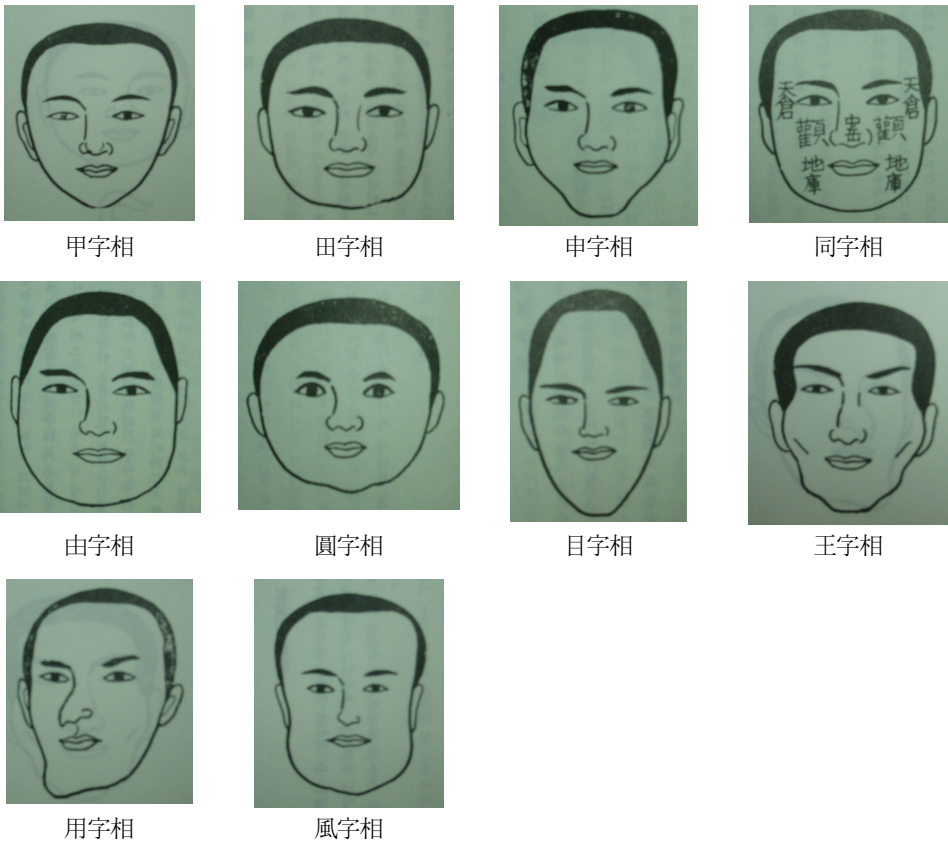


Fig. 4. Ten Face-Types.

치하지 않는 얼굴

- ⑩ 風字相: 얼굴의 형은 이마가 方正하고 넓으며 턱도 넓게 퍼져 살쨍 보이나 두 顴骨부위 즉 얼굴의 중앙이 모두 좁게 생기고 아래 위만 넓어 보이는 얼굴

7) 十字相의 판정

十字相의 판정은 『相學眞傳』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식으로 얻은 측정항목 간 비율 6가지를 참고하여 각 사람의 사진상 얼굴을 보면서 판단하였다. 크고 작음은 각 수치별 대상자의 전체평균을 기준으로 하였다.

甲字相은 F1이 크다. F2가 크고 F3가 작다. F4가 크고 F6가 작다.

田字相은 F1이 작다. 각이 진 얼굴이다.

申字相은 F1이 크다. F2가 작고 F3가 작다. F5가 크다.

同字相은 F1이 크다. F2가 크고 F3가 크다.

由字相은 F1이 크다. F2가 작고 F3가 크다. F4가 작고 F6가 크다.

圓字相은 F1이 작다.耳目口鼻가 동그랗다.

目字相은 F1이 크다. F2가 작고 F3가 작다. F4가 크고 F5가 작고 F6가 크다.

風字相은 F1이 크다. F2가 크고 F3가 크다. F4

가 크고 F5가 작고 F6가 크다.

王字相과 用字相은 길이의 비가 성립되지 않으며 모양으로만 판단한다.

3. 통계처리

얼굴 가로세로길이의 비율에 대한 통계에는 각 측정항목에 대해 one-way ANOVA검정을 시행하여 체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十字相과 체질과의 관계에 대한 통계는 Exact test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에는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PSS 12.0K for Windows를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항목 간 비율

- 1) 얼굴가로길이 항목에 대한 얼굴세로길이의 비율
A4에 대한 B4의 비와 A5에 대한 B4의 비는 소

Table 2. Ratio of Facial Length to Width.

	Taeumin	Soyangin	Soeumin	p-value
B4/A1	1.61±0.29	1.68±0.18	1.74±0.24	0.188
B4/A2	1.28±0.23	1.41±0.18	1.39±0.20	0.085
B4/A3	1.39±0.13	1.50±0.18	1.44±0.13	0.060
B4/A4	1.28±0.23	1.39±0.21	1.46±0.25	0.036
B4/A5	1.78±0.34	1.99±0.35	2.32±0.64	0.000

Unit: Mean±S.D.

Table 3. Ratio of Length Items in Face.

	Taeumin	Soyangin	Soeumin	p-value
B1/B4	0.30±0.04	0.30±0.05	0.31±0.02	0.237
B2/B4	0.34±0.03	0.34±0.03	0.36±0.02	0.206
B3/B4	0.36±0.03	0.36±0.04	0.33±0.03	0.002

Unit: Mean±S.D.

Table 4. Ratio of Width Items in Face.

	Taeumin	Soyangin	Soeumin	p-value
A1/A3	0.73±0.14	0.77±0.07	0.75±0.08	0.316
A2/A3	0.95±0.03	0.92±0.05	0.94±0.05	0.173
A4/A3	1.00±0.06	1.02±0.07	0.96±0.08	0.020
A5/A3	0.69±0.08	0.66±0.07	0.59±0.12	0.001
A1/A5	1.08±0.24	1.18±0.16	1.32±0.27	0.002
A1/A2	0.77±0.15	0.84±0.06	0.80±0.07	0.082
A5/A4	0.73±0.07	0.71±0.07	0.65±0.10	0.006

Unit: Mean±S.D.

Table 5. Distribution of Classification by Face-type with SasangConstitution.

	Gap (甲)	Jeon (田)	Sin (申)	Dong (同)	Yu (由)	Won (圓)	Mok (目)	p-value*
Taeumin	1 (16.7)	9 (50.0)	3 (25.0)	11 (68.8)	4 (36.4)	0 (0)	0 (0)	0.04
Soyangin	1 (16.7)	6 (33.3)	5 (41.7)	2 (12.5)	5 (45.5)	1 (20.0)	0 (0)	
Soeumin	4 (66.7)	3 (16.7)	4 (33.3)	3 (18.8)	2 (18.2)	5 (80.0)	1 (100)	
Total	6 (100)	18 (100)	12 (100)	16 (100)	11 (100)	6 (100)	1 (100)	

Unit: N(%)

*By Exact test

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의 항목에서는 체질 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2) 얼굴세로길이 항목 간의 비율

B4에 대한 B3의 비는 소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그 외의 항목에서는 체질 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3) 얼굴가로길이 항목 간의 비율

A3에 대한 A4의 비, A3에 대한 A5의 비, A4에 대한 A5의 비는 소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A5에 대한 A1의 비는 태음인이 소양인과 소음

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그 외의 항목은 체질 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2. 十字相과 체질

1) 체질별 十字相의 비율

체질과 十字相의 exact test 결과, 유의확률 0.04로 유의성이 있었다.

2) 체질별 가설검정 결과

태음인은 소양인과 소음인에 비하여 同字相이 유의하게 많았다.

소음인은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하여 圓字相이 유의하게 많았다.

그 외의 가설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Table 6. Jeon(田), Dong(同)_Face-Type and Taeumin.

Unit: N(%)			
	Taeumin	Soyangin+Soeumin	p-value*
Jeon (田)	9(50.0)	9(50.0)	0.34
Dong(同)	11(68.8)	5(31.2)	0.01

*By Chi-square test

Table 7. Sin(申), Yu(由)_Face-Type and Soyangin.

Unit: N(%)			
	Soyangin	Taeumin+Soeumin	p-value*
Sin (申)	5(41.7)	7(58.3)	0.31
Yu (由)	5(45.5)	6(54.5)	0.28

*By Fisher's exact test

Table 8. Gap(甲), Won(圓)_Face-Type and Soeumin.

Unit: N(%)			
	Soeumin	Taeumin+Soyangin	p-value*
Gap (甲)	4(33.3)	2(66.7)	0.06
Won(圓)	4(80.0)	1(20.0)	0.03

*By Fisher's exact test

IV. 고찰

사상의학은 東武 李濟馬가 창시한 의학이론으로 사람을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의 네 가지 체질로 나누어 각 체질별 生理, 病理, 診斷, 治療, 豫防을 연계하여 임상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의학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체질감별이 전제가 되어야한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체질감별의 방법으로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病證藥理를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과 용어가 함축적이어서 임상에서의 체질감별진단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상체질분류 검사지(QSCC)를 이용하는 방법, 체형을 측정하는 방법, 안면을 측정하는 방법, 음성분석기(PSSC)를 이용하는 방법 등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체질감별의 객관화 방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 등³⁾의 연구에 의하면 사상체질의학 전문가 총37명에게 사상체질진단시 안면부 특징의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95%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안면전면부의 전체적인 형태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100%로 얼굴의 전체적 형태는 체질감별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 望診을 할 때 얼굴을 관찰하는 것을 중요하듯이,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얼굴을 보아서 사람의 성격과 환경, 미래의 길흉화복을 알아보기 위한 관상학이 발달해 왔다. 관상학은 중국의 상고시대부터 유래되어 송나라 陳搏의 『麻衣相法』을 저술함으로써 내용이 정리되기 시작하여 이후로 많은 내용이 보충되었으며, 얼굴을 보는 다양한 방법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 여러 방법 중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는 방법으

로 ‘十字相’ 관상법이 있다. 이것은 얼굴을 열 가지의 글자모양으로 보는 것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단순화시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사상의학에서 체질을 감별하거나 진찰을 할 때에도 체질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있고 진단에서의 여러 가지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안면부의 전체적인 형태, 즉 얼굴의 윤곽과 체질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로 얼굴의 가로 및 세로의 측정선들을 설정하고 그 길이의 비율과 체질과의 상관성을 알아보았고, 두 번째로 『相學眞傳』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측정선 길이의 비율을 분석하여 十字相으로 분류한 후 체질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얼굴의 측정선은 이마, 눈썹부위인 상안부와 눈, 코, 관골부위인 중안부, 입과 턱부위인 하안부로 나누어 보기 위하여 가로길이는 A1, A2, A3, A4, A5의 5가지로 하였고 세로길이는 B1, B2, B3, B4의 4가지로 하였다.

얼굴의 가로길이 항목에 대한 세로길이의 비율 중에서 B4/A1, B4/A2, B4/A3는 체질 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B4/A4, B4/A5는 소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이것은 소음인 하안의 가로길이에 대한 세로길이 길다는 것이며, 이 등³의 논문에서 소음인 다빈도 중요 안면 특징의 내용 중, ‘얼굴이 상하로 길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B3/B4에서 소음인의 하안세로길이가 전안세로길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가름해 보이는 것이지 하안이 절대적으로 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안부의 특징은 A1/A3, A1/A2, A2/A3, B1/B4를 같이 살펴보면 체질별로 이마가 얼굴에서 어떤 모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체질별 유의성 있는 항목은 없었다. 그러나 평균을 비교하면 A1/A2는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순인데, 소양인은 이마의 상부가 하부에 비하여 좁으며 태음인은 이마의 상부가 하부에 비하여 넓어서 이마가 가로로 넓은 것을 나타낸다. 또한 B1/B4는 소음인이 가장 커서, 소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

에 비하여 이마가 상하로 긴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고 등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性理臨牀論』의 소음인의 이마가 체구에 비하여 긴 편이라는 내용³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태음인의 경우 얼굴세로길이 대비 상안세로길이가 짧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 등³의 논문에서 태음인의 다빈도 중요 안면특징 중 ‘태음인의 이마가 좁다’는 내용과는 일치되었지만 『四象診療保元』과 『연변사상의학』에서의 ‘이마가 넓다’는 것²과는 달랐다. 그러나 ‘이마가 넓다’는 것은, A1/A2와 A2/A3가 큰 것으로 보았을 때 이마가 좌우로 넓은 것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중안부의 특징은 A2/A3, A4/A3, B2/B4를 같이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A4/A3는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순이며, 소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이것은 소음인 중안부의 하부 및 하안부의 상부의 가로길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A2/A3, B2/B4는 체질 간 유의성이 없었으나 평균비교에서는 A2/A3가 소양인이 가장 작은 결과가 나와서 소양인이 다른 체질에 비하여 관골부위 가로길이가 눈썹부위 가로길이보다 길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것은 이 등³의 소양인 다빈도 중요안면특징에서 ‘중안부가 돌출했다(광대뼈가 발달)’와 부합되는 결과이다.

하안부의 특징은 A4/A3, A5/A3, A5/A4, B3/B4를 같이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A4/A3, B3/B4는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순이며, 소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고, A5/A3, A5/A4는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순이며, 소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이 결과들을 보면 네 가지 항목 모두 소음인이 다른 체질에 비하여 유의하게 작으므로 소음인의 턱 부위가 가로길이나 세로길이 모두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음인의 하안부에서 턱만 뾰족한 것이 아니라 턱의 상부에서부터 좁아지는 모양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 등⁴의 논문에서 실측한 소음인의 특징 중 하안의 길이가 최소이며 하안의 면적이 최소라는 것과 같은 결과이며, 이 등³ 논문의 소음인의 다빈도 중요안면

특징에 나오는 ‘얼굴이 상하로 길며 가름하다’는 내용이, 실제 임상에서는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이마보다는 중안부 이하의 얼굴이 가름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태음인의 경우 A5/A3와 A5/A4가 높아서 『사상방약합편』에 ‘地閣豐厚’로 표현되는 ‘턱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한 태음인의 다빈도 중요안면 특징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소양인은 A4/A3, B3/B4가 커서 턱의 상부가 가로로 긴 특성을 가지며 다른 체질에 비해 하안부의 세로길이가 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相學眞傳』에 있는 十字相의 내용을 근거로 각 연구대상자를 위에서 설정한 측정선의 길이를 분석하고 十字相으로 분류하여 체질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十字相을 분석해 보면 甲字相은 상안부가 넓고 하안부가 좁은 역삼각형의 모양이고 田字相은 사방이 넓고 각이 뚜렷한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며 申字相은 상안부와 하안부가 좁고 중안부가 넓은 마름모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同字相은 상안부와 하안부가 넓으면서 중안부도 발달한 넓은 직사각형의 모양이고 由字相은 상안부는 좁고 하안부가 넓은 삼각형 모양이며 圓字相은 얼굴과 이목구비가 모두 둥근 원모양이다. 目字相은 상안부와 하안부가 좁고 길며 중안부가 짧은 타원형의 모양이며 風字相은 상안부와 하안부는 넓고 중안부는 좁은 모양이다. 王字相은 얼굴에 뼈가 많이 드러나서 강해보이는 인상이고 用字相은 얼굴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인데 이 두 가지 얼굴형은 기준을 정하기 모호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수식으로 얻은 측정항목 간 비율인 F1, F2, F3, F4, F5, F6를 참고하고 대상자의 얼굴 사진을 판단하여 8가지의 얼굴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번 연구대상자에서는 風字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총 7가지의 얼굴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얼굴형과 체질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는데 있어서 변수에 비하여 대상자의 수가 적어서 기댓값이 5보다 작은 항목이 많았으므로 exact test를 사용하여 체질별 十字相의 분포가 유의하게 다르다는 결과

가 나왔다.

체질별 얼굴형을 보면, 태음인은 同字相, 田字相에 많았으나 同字相에만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Table 6). 따라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넓적한 모양이면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등³의 논문에서 ‘얼굴이 크다’, ‘안면이 좌우로 발달했다’, ‘턱이 발달되어 있다(하악부위가 중후하다)’는 태음인의 다빈도 안면 특징과 부합되는 면이 있었으며, 고 등⁴의 논문에서 안최대폭 측정치가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순으로 태음인이 소양인, 소음인과의 비교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하였고, 코, 비인부, 중안, 하안의 면적이 최대라 하였는데 이것은 태음인의 얼굴이 옆으로 넓은 형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同字相이나 田字相과 같은 모양을 나타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양인은 申字相, 由字相에 많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able 7). 이 등³ 논문의 다빈도 안면특징 중 ‘턱이 좁고 뾰족한 역삼각형이다’, ‘중안부가 돌출했다(광대뼈 발달)’, ‘하악이 각져 있다’ 등은 申字相을 가진 소양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 등⁴도 실측을 통한 결과로 소양인은 중안이 돌출형이라고 하였다.

소음인은 甲字相, 圓字相에 많았는데, 圓字相에만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Table 8). 圓字相의 경우 ‘인상이 유순하다’와 통하는 것으로 보이며, 『普濟演說』에서 소음인의 얼굴형에 대하여 ‘團圓’이라고 하였는데² 圓字相의 얼굴에 소음인이 많은 결과와 부합된다. ‘얼굴이 상하로 길며 가름하다’는 것은 甲字相인 소음인에게서 보이는 특징 일 것으로 생각되며, 고 등⁴의 논문에서 안최대폭에 대한 전액폭의 비는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고 하여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하여 이마폭이 넓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소음인이 甲字相을 나타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고 등⁴의 논문에서 상안의 면적은 소음인이 최대이며 소양인이 최소라 하였고, 중안의 면적은 태음인이 최대이며 소음인이 최소라 하였고, 하안의 면적은 태음인이 최대이며 소음인이 최소라 하였다. 이것은 소

음인은 상안이 넓고 중안과 하안이 작은 甲字相 일 가능성, 소양인은 상안이 좁은 申字相, 由字相 가능성, 태음인은 중안 하안이 넓은 田字相, 同字相, 由字相일 가능성이 높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사상 처방으로 사상체질이 진단된 69명을 대상으로 안면부에 설정한 길이들 간의 비율과 체질과의 상관성을 알아보았고, 十字相으로 분류하여 체질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문헌과 연구들의 안면부 전체적 형태에 관한 내용과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체질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 항목을 살펴 볼 수 있었고 각 체질별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체질 감별을 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되거나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결과를 찾아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사상처방으로 체질이 확진된 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적어서 자료의 검정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으며, 사람의 얼굴윤곽과 모양은 연령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면에서의 보완을 한다면 더욱 자세한 체질 감별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상체질별 안면부 전체적인 형태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얼굴에 측정항목 9가지를 정하고, 사진상으로 그 길이를 측정하여 비율을 구하고 통계를 내어 사상체질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相學眞傳』 十字相의 내용을 토대로 항목 간 비율을 참고하여 얼굴형을 7가지로 나누어 체질 간 유의성을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임상에서 다용하는 체질별 안면부의 특징과 비교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석항목을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세 체질

군간 비교한 결과, 소음인이 다른 두 체질에 비하여 하안의 가로길기와 세로길이 모두 얼굴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얼굴이 가름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얼굴형을 十字相으로 나누어 본 결과 甲字相, 田字相, 申字相, 同字相, 由字相, 圓字相, 目字相等 7가지로 분류되었으며 태음인은 同字相에 유의하게 많았고 소음인은 圓字相에 유의하게 많았으며 소양인은 유의성 있는 얼굴형 항목이 없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체질별 안면부 형태의 특징을 발견하였으며, 기존의 체질별 중요 안면특징 및 임상가의 저서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해 본 결과 일치되는 항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흡했던 부분을 보충하여 여러 연구가 더 시행된다면 좀 더 확실하게 객관적 체질감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된다.

VI. 참고문헌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2005. 151-164.
2. 이의주, 손은혜, 유정희, 김종원, 김규곤, 고병희, 송일병. 사상인의 용모에 관한 문헌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3):55-68.
3. 이준희, 김윤희, 황민우, 김종열, 이의주, 송일병, 고병희. 사상인의 안면, 음성, 피부 및 맥진 특성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7;19(3):126-143.
4. 고병희, 조용진, 최창석, 홍석철, 김종원, 이의주, 이상용, 서정숙, 송일병.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특징.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1):101-186.
5. 김창수. 태음인과 소음인의 두면부의 체질인류학특점.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9(2):299-302.
6. 홍석철, 이수경, 송일병. 사상체질별 상안부의 형태학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모아래의 횡단면의 특성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 1998;10(1):161-170.
7. 홍석철, 이의주, 이수경, 한기환,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별 상안부 Moire 형태의 특징에 관한 연구. 1998;10(2):271-281.
 8. 홍석철, 고병희, 송일병. 사상인의 이목비구의 형태학적 특징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2):221-270.
 9. 윤중현, 이수경,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한국인 남녀 50-60대의 사상체질별 안면형태에 관한 표준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123-131.
 10. 윤중현, 임규성, 김상복, 이준희, 박계수, 이수경,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한국인 남자 30-40대와 50-60대의 사상체질별 안면형태에 관한 비교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143- 152.
 11. 정광희. 30-40대 남성의 사상체질별 안면특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2. 홍세영. 한국인 30-40대 여성의 사상체질별 안면특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13. 조중현. 사상체질의 성별 안면형태의 표준화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4. 윤중현. 사상인 용모의 두면계측 표준화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5. 이준희, 김경수, 이갑수, 유정희, 문영식, Luvsannyam Bazargarid N, Tumurbaatar, S. Oldokh, Tubdengiin Sukhbaatar, 김종열, 이시우, 김효정, 황민우, 고병희, 이의주. 몽골인의 사상체질별 안면부 특징:예비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7;19(3):62-74.
 16. 이정래. 상학진진. 동양학술원, 대전, 1996.